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7. 9(월) / 총 1매(본문 1)
담당 부서	항공산업과	담당자	· 과장 박명주, 사무관 좌명한 · ☎ (044) 201-4219, 422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‘아시아나 항공도 미국국적 등기이사 불법재직’보도 관련

□ 국토부는 진에어와 함께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* 사실에 대해서도 제재처분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,

* 미국인 브래드빙식박, '04.3.19~'10.3.26 사외이사 재직, 이후 한국국적 취득

○ 법률자문 결과, 진에어의 경우와는 달리 아시아나는 “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행위였고, '14년에 결격 사유가 없는 변경 면허를 발급받아 면허 취소가 어렵다”는 의견이었습니다.

□ 국토부는 다시 한번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철저히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.

< 보도내용 (7.9 경향, 중앙) >

- ◆ 국토부, 아시아나 항공의 불법 외국인임원 재직 사실 알고도 묵인 논란
 - 아시아나 항공에도 미국국적 등기이사가 '04년부터 '10년까지 6년간 재직
 -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의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부 논의를 거쳐 비공개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
 - 항공사업법 위반은 처분 시효가 없는데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버려 진에어와 비교할 때 형평성 지적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좌명한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